

토론문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배경

2003년 협약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화 장치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유네스코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 세계의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적절한 시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체나 공동체가 공유해 온 사상, 관습, 종교 및 가치를 담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확립된 경험의 결정체이지만, 현재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다. 본 토론문은 남아시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체성과 표현방식에서는 차별성을 지닌 공유 문화자원으로서 무형유산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관

남아시아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무수한 무형문화 표현물이 있는데 각 공동체,

마을과 지역마다 그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은 박람회와 축제, 예배와 의례뿐만 아니라 게임, 놀이, 예술 및 공예 등 그 형식 또한 지역별로 다양하다. 신화, 민속, 예배양식, 축제, 박람회 및 예술로서 표현되는 수많은 무형문화유산 표현물들이 있다. 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현물 외에도,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은 범아시아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민족, 지역성, 장르 및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 수준 및 버전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대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의 전통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네팔 및 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마야나는 그 형태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노래, 춤, 연극공연, 서술, 그림, 영화 및 TV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 형태는 함께 공존하며 공통의 아시아 문화 유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써, 전통음악 수피(Sufi)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제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너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호 프로그램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제라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다루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명확하게 개념화한다. 기존의 다자간 지역네트워크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하여 공통된 관심사를 다룬다(예를 들면, SAARC 문화센터 주관으로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민속 무용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다).
- 다양한 문화유산의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과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각 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다른 단체, 공동체, 지역, 장르 및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최우선 분야를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기록화를 강력하게 추진함

으로써 “전통”을 지속하고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증진하도록 한다.

-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작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몇몇 관련기관을 네트워킹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주,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고유한 지혜, 전통 지식 및 기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와 협력 작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전문인력을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유산관리과정의 신설이 시급하다.
- 정부, 정부산하기관, NGO, 민간분야, 연장자, 여성,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국가/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진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자와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
- 공개 행사, 박람회 및 축제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담긴 창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주요 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제도를 수립한다.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공연 및 시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과정을 정규교육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상호연계 교과목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 연행 및 연구를 지원한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과 무엇보다 중요한 입법체계를 구축한다.
- 문화관련 쟁점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 문화유산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건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남아시아를 위한 전략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

산 보호 계획이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담은 결연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관련 국가들을 장려해야한다.

- 정부, 관련 기관, NGO, 공동체 구성원, 교육기관 대표 및 실연자가 참여하는 지역자원센터와 관련 국가센터를 신설한다.
- 멀티트래킹시스템(multi-tracking system)을 통해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조사, 지도, 연구, 참조).
- IT 장치와 음성 및 영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록화 한다.
- 문화유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금 및 재원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를 재정상, 운영상 지원한다.
- 무형문화유산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공연 및 연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학교와 대학에 전문 교육 체계로서 문화유산 관리과정과 문화유산 교육과목을 신설한다.
- 공개행사, 박람회 및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표현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남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를 위한 전략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실천계획과 다양한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보급 및 교환 프로그램의 기획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활용, 훈련, 지원을 통한 목록 작성의 기회를 창출한다.
- 모범사례의 활용, 교육 및 그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기록화 전략을 수립한다.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을 보급하고 문화유산 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

- 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 유네스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제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훈련과정을 마련한다.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사하피디아(Saphapedia) – 인도 및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온라인 백과사전

사하피디아는 인도, 더 넓게는 남아시아의 문화와 유산을 아우르는 종합 온라인 공개 백과사전으로 기획되었으며 다중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하피디아의 세 가지 목표는 정보전달, 교육 및 실행에 있다. 해당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인도와 남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등록된 이용자가 서로 토론하고 편집하여 작성하게 될 것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기사와 함께, 사하피디아는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 지도, 연대표 및 계보도(Lineage tree) 등 풍부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사하피디아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잠재적 협력 분야

-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 문화유산 유형과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 남아시아 전역의 구전역사 기록을 위한 구술면담 프로젝트
- 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양식, 관습, 행사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문화지도 제작 프로젝트
- 교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고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토론문

칼리드 자바이드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장

아시아 대륙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탄생한 곳이며 문명이 화려하게 꽃 피운 곳이다. 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근저에는 진(眞)과 미(美)를 향한 추구, 상호 관용을 통한 이 땅의 평화 구축, 그리고 인류 행복의 기초 원리인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전한 각 지역의 민속전통은 이들 종교의 도덕적·사회적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고유의 신앙과 실천 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사회는 본질적으로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사랑과 평화의 문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전통 유산으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아시아 국가들은 예술·공예·문화·음악·민속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남아시아지역에서 민속음악의 영향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아대륙(亞大陸)의 음악은 지역성, 인종의 다양성, 끊임없는 외국의 영향으로 다양화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구전 민속유산은 기도문, 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체로 연행되며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도 음악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음악이 지닌 긍정적 기운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고도의 현대화나 산업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저개발국이다. 이러한 저개발 상태가 오히려 파키스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 최대 이점으로 파키스

탄의 민속 문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전통이란 점을 꼽을 수 있다. 파키스탄 주민들은 민속 문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도처에서 민속 문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당연시하듯, 이들은 자국의 민속 문화와 그 풍부한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파키스탄의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발전해 왔으며,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기원은 약 9천 년 전 바루치스탄(Bolochistan)주에서 번성했던 고대 메헤르가르(Mehergarh)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5천 년 전의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인 하라파(Harappa)와 모헨조다로(Mohenjodaro) 중심의 인더스 문명과 2천 5백년 전 간다라 미술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파키스탄의 전통문화는 매우 뿌리 깊고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파키스탄 국민의 대다수는 촌락에 거주한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관습과 의례, 예식, 신앙, 민간노래와 춤이 일상생활의 정서적 토대를 형성한다.

파키스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예술적 표현 및 창의성, 민족/종교 단체 및 언어적 측면에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풍부한 문화적 역사와 문화유산의 증진 및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유네스코의 역할은 일종의 촉매제로서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평가 및 재확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기획 및 개발의 전 영역이 문화적 요인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자리를 빌려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내가 속해 있고 파키스탄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Lok Virsa)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소는 문화유산연구 및 보호활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기관으로 지난 40여 년간 파키스탄 고유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수집·기록·보존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연구소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녹음한 2만여 시간의 원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는 촌락별, 도시별, 지역별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기록한 음성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는 후대를 위한 국가유산의 보고(寶庫)로서 파키스탄 무형문화유산 관련 단일 아카이브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기관들은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의 기본 방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합동 전략 구상을 응집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무형문화 분야 전문가들과 전통 민속 예술가, 음악가 및 공예가들의 비정기적 왕래를 위해 회원국의 문화기관 간에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정보 및 전문지식, 전시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회원국의 유관기관 간에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Lok Virsa)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촉진할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수과정 및 워크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을 비롯해 아태지역의 관련 박물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 전통기술에 관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연구를 교류하기 위해 장인, 공예가 및 문화예술가를 비롯한 전통문화 실연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행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기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역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식, 기술 및 여타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기록화와 보존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해 준 한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일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들 기관의 정책은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정책과 지침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의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 귀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각국의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박성용 사무총장 대행과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며 이 모든 노력과 정책활동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가 증진되고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

토론문

윤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관기록원 수석연구원

바르고 건전한 국가정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 세계화 그리고 문화 및 전통의 동화(同化)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점차 변화한다. 외래문화가 자국에 서서히 스며들어 기존 전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영향을 줄이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부탄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의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보유한 공동체가 현대화와 편의시설에 노출되면서 점차 기존 문화가 잠식당하고 고유한 사회적 관습도 TV와 기타 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현대화와 융합 문화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2. 공동체의 젊은 세대가 현대 서구식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와 대학에서는 핵심 문화가치 및 유산을 좀처럼 다루지 않는 가운데, 젊은 세대 사이에 고유문화가 지닌 중요성과 위상은 점차 하락하여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체 및 공동체의 문화관습 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있다.

3.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사회적 태도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성격과 생각이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사회 각 부분의 구성원들 간에 사고방식 및 행동상의 유대관계도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4. 현대식 교육과 이농현상, 그리고 젊은 층의 도시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층은 농촌에 남아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상실로 이어졌고 과거 소중히 여겼던 본질과 관습, 존중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5. 물질주의 발전에 대한 대가로 정부나 개인들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요 무형문화유산들은 그 발상지에서 영원히 소멸될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 간에 좀 더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들이 미미하게나마 회원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토론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1. 생태파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문화가치의 훼손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보다 나은 내일의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문화가치와 도덕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 모든 학부모들과 정책 담당자, 연구자 및 교육자들은 이 중대한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가치와 그 지배력에 있어 정신력 쇠퇴'를 다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오늘날 각국이 직면한 난제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증진 방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가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이제 협소한 사회적 시각을 뛰어넘어 무엇이 '보편윤리(universal ethics)'인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개선된 상황에서 국민의 행

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3. 회원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이 국가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지도자들이 확신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개발정책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진지한 자세로 실행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 네트워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문화가치를 보급할 때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사고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국가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이 여전히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특히 젊은 층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 문화가 미래 세대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하려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고유문화의 지킴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국가의 토대가 된 가치와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5.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상이한 무형문화유산이라도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훼손과 파괴의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선진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선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후진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회원국 간에 전문지식과 학자들을 교환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연계성을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회원국간의 더 깊은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간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8.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네트워킹과 정보 센터 혹은 조정 센터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 센터는 각국의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관련 활동을 전산화하고 부속 시설을 제공하며 무형문화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위해 회원국 공동체의 관심사를 다룬 출판물과 정기 간행물, 음성 및 영상 자료

를 발간해야 한다.

결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그 형태와 상관없이 소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고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유형문화유산과 비교해 볼 때, 추상적인 무형문화유산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조상의 경험적 기술과 구전으로 전승되는 정보로서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부탄 전역에 퍼져있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전수 받고 있다. 무엇이 축적되든 간에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며 장려해야 한다.

부탄 문화부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조항을 이행하며, 최초로 부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시스템의 기술적·개념적 토대 구축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제안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향한 소중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